



DAESHIN
UNIVERSITY

大神學報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
대신대학교

•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양성 • 경건으로 훈련된 신앙인 양성 •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 양성 •

발행인 최대해 주간 양신혜 편집장 김신향 / 제50-51호 2018. 6. 15 / <http://www.daeshin.ac.kr>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TEL. 053-810-0701~3

대신대학교 63회, 15회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12일(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제63회 대신대학교, 제15회 대학원·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사회는 본교 운영이사장 김장교 목사가 맡았으며, 기도예배에 재단 이사 박현규 장로, 성경봉독에 운영이사 박태경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이날 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마 10:16절을 통해 “보냄 받은 그대여,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후 김재국 박사에게 명예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했으며, 여러 학생들이 분야별로 상을 받았다. 최대해 총장의 훈사,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치사,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의 축사와 함께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증경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학위수여를 받은 학생은 문학사(B.A.) 50명, 음악학사(B.Mus.) 22명, 명예신학박사(H.Th.D.) 1명, 철학박사(Ph.D.) 1명, 신학석사(Th.M.) 2명, 문학석사(M.A.) 1명, 음악학석사(M.Mus.) 1명, 목회학석사(M.Div.) 45명, 목회신학원 15명 총 138명이었다.

김신향 편집장

2018 대신대학교 입학식

2018년 3월 2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입학·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날은 본교 부총장인 황봉환 교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기획처장인 서길수 교수가 대표로 기도하였으며, 음악학부 류진교 교수가 특송을 해주었다.

최대해 총장은 출 3:1-12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후 신입생 대표로 신학대학원 1학년 강진진 원우의 신입생 선서와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한 29년 동안 본교를 섬기신 박준향 학생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교는 학부 116명, 편입 87명, 신학대학원 61명, 목회신학원 8명 총 276명이 입학하였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교직원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많은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김신향 편집장



대신대학교와 함께 할 인재를 초빙합니다

1.전임교원

학과	전공분야	인원
신 학 과	신약신학	각0명
	구약신학	
	조직신학	

▷ 지원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www.daeshin.ac.kr)

▷ 접수기간 및 접수처

① 접수기간 : 2018. 6. 11(월) - 6. 29(금) 15:00시까지

② 접 수 처 : (우)3864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교무 인사담당자 앞

☎(053)810-0717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대신대학교 방문예배

황인철 목사 방문



지난 3월 6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남부산교회의 황인철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광수 교수가 수고하였다.

황인철 목사는 신 20:1-14절을 본문으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정일 목사 방문



지난 3월 8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고든코엘 신학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김정일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양승혜 교수가 수고하였다.

김정일 목사는 시 73: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최영태 목사 방문



지난 3월 13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양승혜 교수가 수고하였다.

최영태 목사는 빌 1:29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학 생 들 을 위 해 장 학 금 을 전달해주셨다.

이관형 목사 방문



지난 3월 14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성빈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관형 목사는 딤후 6:11-14절을 본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박윤수 목사 방문



지난 3월 15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 성덕교회 박윤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류진교 교수가 수고하였다.

박윤수 목사는 전 3:1-14절을 본문으로 "임회임비를 넘어 경외의 자리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박봉만 목사 방문



지난 3월 27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은혜로교회 박봉만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재환 교수가 수고하였다.

박봉만 목사는 고전 1:18절을 본문으로 "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민남기 목사 방문



지난 3월 28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총회 군중선교회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총회군목 단장 황성준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회군목부 회계 신영수 정로가 수고하였다.

총회군목 부장 민남기 목사는 요 10:7-15절을 본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권희찬 목사 방문



지난 4월 3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자인교회 권희찬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이경미 교수가 수고하였다.

권희찬 목사는 민 18:1-7절을 본문으로 "나는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남준 목사 방문



지난 4월 4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장이 수고하였다.

김남준 목사는 요 21:15절을 본문으로 "실재한 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학교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주셨고 오후에는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신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해주셨다.

박태경 목사 방문



지난 4월 5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 부총무가 수고하였다.

박태경 목사는 히 11:13-16절을 본문으로 "출장 중인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문훈 목사 방문



지난 4월 10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방문하여 총학생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한현숙 총학생회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영란 부총학 회 장 이 수 고 하 였 으 며, 성경봉독은 김연희 신앙부장이 수고하였다.

김문훈 목사는 시 78:70-72절을 본문으로 "영성, 야성, 정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관영 목사 방문



지난 4월 11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영천문화교회 이관영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 사기가 수고하였다.

이관영 목사는 고후 11:22-27절을 본문으로 "은혜 안에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대경노회 방문



지난 4월 24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경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사기 김성택 목사가 수고하였다.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김세구 장로가 수고하였으며, 성경봉독은 회록서기 김태성 목사가 수고하였다.

대경노회 노회장 김강국 목사는 눅 3:21-22절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주셨다. 대경노회 부노회장 김두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진홍 목사 방문



지난 4월 25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대구교회 김진홍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장이 수고하였다.

김진홍 목사는 창 29:31-35절을 본문으로 "레이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상운 목사 방문



지난 4월 26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인흥교회 이상운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기획홍보부장이 수고하였다.

이상운 목사는 요 15:1-7절을 본문으로 "목회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두형 목사 방문



지난 4월 27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인천제일교회 이두형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대의원 의장이 수고하였다.

이두형 목사는 마 8:23-25절을 본문으로 "믿음이 없다는 책망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 만촌교회 박진국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경청노회 방문



지난 5월 1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경청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부노회장 석광희 목사가 수고하였다.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정도현 장로가 수고하였다.

경청노회 노회장 이찬신 목사는 행 7:51-60절을 본문으로 "스데반 같은 사역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 파송이사 장태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설정수 목사 방문



지난 5월 2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옥산교회 설정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설정수 목사는 시 118:21-23절을 본문으로 "재활용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재범 목사 방문



지난 5월 8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남교회 이재범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계가 수고하였다.

이재범 목사는 고후 5:13-14절을 본문으로 "불량불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정정웅 목사 방문



지난 5월 9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신촌교회 정정웅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친교부장이 수고하였다.

정정웅 목사는 계 3: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주셨다.

한수환 목사 방문



지난 5월 10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서울성교회 한수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미주비전트리 김경호 찬양팀장이 수고하였다.

한수환 목사는 삼상 9:14-17절을 본문으로 "기도의 실력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경중노회 방문



지난 5월 15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파동찬대교회 경중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사기 문병만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하은주 장로가 수고하였으며, 성경봉독은 회록서기 김정화 목사가 수고하였다.

경중노회 노회장 김병준 목사는 창 1:26-2:3절을 본문으로 "영물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 학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주셨다. 부노회장 박병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곽양구 목사 방문



지난 5월 16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파동찬대교회 곽양구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한현숙 총학생회장이 수고하였다.

곽양구 목사는 고전 1:5-11절을 본문으로 "나의 나 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최동현 목사 방문



지난 5월 17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포항지구촌교회 최동현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방선혜 총학생회 부장이 수고하였다.

최동현 목사는 창 26:12-15절을 본문으로 "생애 최고의 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주셨다.

정명식 목사 방문



지난 5월 18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호산나교회 정명식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안병경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학부 대의원 의장이 수고하였다.

정명식 목사는 요 14:13-17절을 본문으로 "너의 가슴에 불을 붙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학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주셨다.

윤잠식 목사 방문



지난 5월 23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남천승리교회 윤잠식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수고하였다.

윤잠식 목사는 시 55:1-3절을 본문으로 "다윗이 둔 마지막 불허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현기 목사 방문



지난 5월 24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부산장대교회 김현기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학회장이 수고하였다.

김현기 목사는 렘 1:4-10절을 본문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아프리카 우간다 "하나님의 복" 찬양팀과 필리핀 찬양팀이 방문하여 학생들을 위해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었다.

종강예배



지난 5월 25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1학기 종강예배가 열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양승혜 학생처장이 수고하였다.

최대해 총장은 눅 19:1-11절을 본문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 학교에서 주최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시상하였다. 금상으로 신학과 이석 학생, 은상으로 신학과 이현진 학생, 동상으로 신학과 조효원 학생이 수상하였다.



원우회를 위해 말씀했다. 당시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7명의 집사를 뽑음으로 해결했는데, 이 때 7명의 집사를 뽑은 기준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해주시면서, 다가오는 원우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설교했다. 설교 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이제 드러질 총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기도했다.

예배를 드린 후 2부 총회가 시작되었다. 총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회원점명을 했다. 각 학년 과대들의 인원점명과 총무의 인원보고를 통해 총 162명 중 1학년 40명, 2학년 36명, 3학년 35명으로 111명 과반 출석으로 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총무가 사업보고를 하고 회계가 회계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하는 중간에 여러 원우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대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 감사보고를 했다.

이후 김주식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 투표를 진행했다. 먼저 원우회 회장과 총무 후보의 인사가 있고, 투표를 실시하였다. 총 투표수 127표 가운데, 무효표 3표, 찬성 86표, 반대 28표로 표결되어 김동원 회장과 박은중 총무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자 김동원 회장과 박은중 총무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원우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하였다.

신학대학원 이상현 기자

학생.신.앙.수.련.회

다른 길은 없다, 주님만 따르자!



2018년도 1학기 학생 신앙 수련회가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금번 수련회는 3월 20일(화)부터 3월 22일(목)까지 아주사퍼시픽 대학 부총장/총장 특별자문이신 박성민 목사와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채규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첫째 날 박성민 목사는 이사야 5장 8-24절과 이사야 6장 1-13절을 본문으로 <꿰어진 관계>, 둘째 날 이사이야 40장 25-31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본문으로 <희망의 말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 망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새로 받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우리는 세상의 소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해주셨다.

둘째 날 이사이야 40장 25-31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본문으로 <희망의 말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 망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셋째 날은 채규현 목사가 마태복음 13장 1-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12절을 본문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소수의 속한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흥왕하며 천국이

확장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 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된 3일 간의 수련회는 대신대학교 모든 학우들과 원우들의 새로운 한 학기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신학과 조효원 기자



대신대학교 체육대회

‘여호와 이레’ 속에서 준비된 신대원 체육대회



5월 3일, 신대원생 체육대회 날이지만, 4월 말부터 일기예보에는 이 날이 비가 온다고 예보되고 있고 5월 2일에 일기예보를 확인해도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5월 2일 밤에는 비도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원우들과 체육대회를 기다리는 원우들은 불안함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자야했다.

아침이 밝았다.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날씨가 너무 좋았다.

올해는 4월부터 한 여름 같은 더위가 가득했었는데, 5월 3일 오늘은 적당한 구름과 바람으로 날씨가 덥지 않고 좋았다. 우리가 걱정했던 비는 온데간데없고 비대신 더위를 날려버릴 적당한 구름과 시원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다. 그리고 하루전날 온 비로 미세먼지도 없는 좋은 날이었다.

악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악속한 장소인 경산체육공원으로 원우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평소 보던 패션과는 다른 체육대회 패션을 보는 것도 신기했고, 원우들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밝고 신나있었다. 일찍 온 원우들은 오자마자 준비된 과일과 음료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체육대회 장소 어디를 둘러봐도



함께 하는 기쁨 (사회복지과)



2018년 5월 3일 목요일 본 대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 까 하고 모두들

염려하였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순조로이 행사는 시작이 되었다. 행사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처음 경기는 탁구였고 선수를 모두 열심히 뛰어서였다. 결과는 음악과, 사회복지학과, 영문과, 신학과 순으로 순위가 정해졌다. 다음으로 축구가 진행 되었다. 일주일 전부터 예선을 치렀고, 체육대회 당일에는 신학과와 음악과의 결승경기가 치러졌다. 여기서 음악과가 일등으로 우승을 하였다. 다음 경기는 농구였는데 농구 또한 일주일 전부터 예선을 미리 치렀고, 결승에서 사복영문과와 신학과가 자웅을 겨루었다. 결전 끝에 사복영문과가 승리를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축구와 농구경기를 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오전 경기가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체육대회의 마지막 행사이자, 체육대회의 꽃인 계주 이어달리기를 했다. 이어달리기에서는 4라운드까지 남녀가 번갈아 하고 마지막엔 교수님들의 달리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고, 마지막 이어달리기에서는 음악과 1등, 영문사복과 2등, 신학과 3등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축구, 농구, 이어달리기를 합한 최종 점수를 내어보니 음악과가 2018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뒤풀이로 바비큐 파티를 했다. 모두 즐겁게 바비큐를 먹으며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먹고 난 뒤 해산을 하였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회복지학과 강소영 기자

먹go! 마시go! 즐기go! (신학과)

2018년 5월 3일 목요일 본 대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하고 모두들 염려하였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순조로이 행사는 시작이 되었다. 행사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처음 경기는 탁구였고 선수를 모두 열심히 뛰어서였다. 결과는 음악과, 사회복지학과, 영문과, 신학과 순으로 순위가 정해졌다. 다음으로 축구가 진행 되었다. 일주일 전부터 예선을 치렀고, 체육대회 당일에는 신학과와 음악과의 결승경기가 치러졌다. 여기서 음악과가 일등으로 우승을 하였다. 다음 경기는 농구였는데 농구 또한 일주일 전부터 예선을 미리 치렀고, 결승에서 사복영문과와 신학과가 자웅을 겨루었다. 결전 끝에 사복영문과가 승리를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축구와 농구경리를 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오전 경기가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체육대회의 마지막 행사이자, 체육대회의 꽃인 계주 이어달리기를 했다. 이어달리기에서는 4라운드까지 남녀가 번갈아 하고 마지막엔 교수님들의 달리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고, 마지막 이어달리기에서는 음악과 1등, 영문사복과 2등, 신학과 3등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축구, 농구, 이어달리기를 합한 최종 점수를 내어보니 음악과가 2018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뒤풀이로 바비큐 파티를 했다. 모두 즐겁게 바비큐를 먹으며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먹고 난 뒤 해산을 하였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회복지학과 강소영 기자

함께 얻은 우승! (음악과)



2018년 5월 3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오전에 간단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의의 경쟁 속에서 온전하게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게

기도 드렸다. 당일,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 미리 설치했던 천막을 다 걷을 수밖에 없었다. 햇빛이 조금 강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학우들은 천막 없이 돗자리에 앉아서 응원했다. 제일 먼저 탁구 경기가 열렸다. 사복과와의 경기 끝에 여자단식은 어렵게 졌고 남자복식, 단식 경기는 모두 승리했다. 후에 열린 신학과와의 대결도 결과는 같았다. 작전에도 정말 치열했던 탁구 경기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팽팽했다. 평소에도 자주 지하에서 탁구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꾸준한 연습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열린 경기는 농구 경기인데 아침에 우리는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예선 경기가 있던 날 날씨가 유난히 더웠다. 그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몸을 아끼지 않으며 뛰었지만 결과는 조금 아쉬웠다. 열심히 응원하고 즐겁게 뛰는 학우들 모두 점심 먹고 휴식하며 다음 경기들을 준비했다. 선수들이 준비를 마치고 축구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신학과와의 경기였다. 몸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하므로 선수들과 응원하는 학우들 모두 예민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서로 경쟁 속에서도 배려하며 경기를 한 결과 전반에 넣은 골 하나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음악과의 승리였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경기이다 보니 응원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응원에 힘을 받아 우리 선수들이 더 힘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 시간 동안 펼쳐진 경기 속에서 선수들은 지친기색이 역력했지만 승리했다는 기쁨에 모두 즐거워보였다.

이후 체육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계주 경기가 마지막으로 열렸다. 얹차리뛰러뛰러하며 끝날 때 까지 알 수 없는 계주경기라는 것을 증명하듯 마지막 주자에서 역전을 하며 1등을 했다.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로써 우리는 종합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 1년 만에 준우승에서 다시 우승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쿿은 날씨 속에서도 함께 응원해주 학우들과 그

생기가 가득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총 5개의 종목 축구, 농구, 족구, 피구, 계주로 준비되었고 참가팀은 1학년 팀, 2학년 팀, 3학년 팀 총 세 팀으로 구성되었다. 룰은 간단하게 오전에 구기 종목 경기를 리그로 진행하고, 리그 점수를 합산하여 1,2등한 팀이 오후에 결승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전 일정은 예선전으로 준비되었는데, 2시간 동안 예선전이 진행되어야 했기에 동시에 4종목의 예선이 시작되었다. 사실 필자는 예선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듣고 충격에 빠졌었다. 4개의 종목이 동시에 예선전을 실시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우려는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4개의 종목이 동시에 진행되니 원우들은 2시간동안 원우들이 심심할 틈이 없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원우들은 이 종목 저 종목 돌아가면 뛰어다녔고, 여자 원우들은 피구를 했다가 쉴 때는 돌아다니면서 응원하기 바빴다. 이렇게 오전 오후 정신없이 운동을 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경산체육공원이라는 야외에서 신대원 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뷔페를 먹었다. 준비된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원우들도 있었고 그늘에 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먹는 원우들도 있었다. 야외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경험은 우리 원우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식사를 한 후 오전에 치른 예선전에 따라 결승전을 실시했다. 축구와 농구와 피구는 3학년이 우승했고, 족구는 2학년이 우승했다. 이렇게 4개의 구기 종목의 우승팀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계주를 했다. 계주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종합적인 점수를 계산해보니 이번 체육대회는 3학년이 우승했다.

체육대회의 3학년이 우승했지만 이번 체육대회 분위기를 보니 누가 우승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번 체육대회는 누가 우승했는가 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우들이 다 함께 밖에 나와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며 함께 웃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나도 많은 원우들도 생각한다.

신대학원 이상현 기자

응원으로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해 뛰어서 선수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후배 학우들 모두 서로 몸을 부딪치며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신의의 경쟁 속에서 모든 학부가 함께했기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던, 즐겁고 보람찬 체육대회였다.

음악학과 변희욱 기자

제1회 우리들의 라온 누리 (유학생)

2018년 5월 14일(월) 대신대학교에서 국제교류교육원 한국어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되었다.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국제교류교육원은 큰 성장을 보이며 유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함께 걸어 나가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다양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유학생 체육대회는 “제1회 우리들의 라온 누리(즐거운 세상)”라는 명칭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본교 최대해 총장 및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특별히 최대해 총장님이 체육대회를 맞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서길수 국제교류교육원장의 개회사로 라온 누리가 시작되었다. 경기 종목은 장애물경기, 줄다리기, 2인 3각 달리기, 축구, 피구, 혼성 계주 등 총 9개로 이루어졌다.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인 만큼 한국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신나는 음악과 함께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학생들끼리도 활동으로 함께 하며 즐거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편집장 김신형

대신대학교 MT후기

바다 내음처럼 신대원에 불어온 힐링



3월 29일 목요일 9시, 상쾌한 바람이 불고, 날씨는 맑았다. 그리고 상쾌한 바람처럼, 그리고 맑은 날씨처럼 본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원우들의 표정도 상쾌하고 밝았다. 왜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신대원 MT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매일 학교 책상에서 공부만 하던 모습과는 달리 아침부터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온 원우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떤 원우들은 버스에 짐을 싣고 원우회는 바쁘게 안원체크를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오늘 신대원 MT를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영역은 평소와 가던 MT장소보다 멀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무슨 걱정이 있었는가? 함께 버스에 앉은 원우들과 창 밖을 보며, 가져온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며 정신없이 놀다가 경산을 차려보니 벌써 원우회가 준비한 ‘영역 밥한끼 식당’에 도착했다. 우리 원우들이 들어가니 식당이 꽉 찼다. 우리가 가득 채운 식당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식탁은 영역의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찼다. 생선튀김, 굴, 짜게, 연잎 밥 등 맛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득 채워졌다. 역시 교제는 식탁 교제가 최고인 것 같다. 원우들은 정신없이 밥을 먹으면서 테이블에 함께 앉은 원우들과 교제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강구항 주변 풍력발전단지과 해맞이 공원을 갔다. 경치가 장관이었다. 풍력발전소에 가니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데 그 크기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했다. 거대한 풍력발전기와 높고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가 만들어낸 장관은 매일 학교 강의실에서 좁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우리의 마음을 힐링 시켜주었다. 생각보다 넓은 풍력발전지를 삼삼오오 모여서 걸었다. 단순히 걷는 것 뿐이었지만, 높고 푸른 하늘 아래서 그리고 넓고 푸른 바다 옆에서 그리고 멋진 풍력발전기 옆에서 걸으니 걷는 것마저도 특별한 시간이었다. 풍력발전단지에서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해맞이 공원으로 갔다. 해맞이 공원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지금까지 보던 바다와는 달리 조금 특별했다. 지금까지 봤던 바다는 바다와 내가 비슷한 높이에서 바라보는 바다였다면 해맞이 공원에서 보이는 바다는 절벽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었다. 넓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바다위에 작고 하얀 파도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풍력발전단지과 해맞이 공원 두 곳을 다녔을 뿐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 Let's go MT together~! (사회복지학과 & 상담영어학부)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목, 금요일 양일간 대신대학교의 각 학과들은 개별적인 MT를 다녀왔다. 사회복지학과는 경주를 엠티를 다녀왔다. 첫날 떠나기 전 안전점검을 하고 새로이 입학한 새내기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하였다.

경주에 도착하니 점심이 되어 밥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대릉원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히 오후에는 놀이공원과 관광지 팀으로 팀을 나누어서 떠났다. 왜냐하면 놀이공원을 가고 싶지만 관광지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의견충돌이 되지 않게 자유롭게 선택지를 두는 취지에서 팀을 나누었던 것이다.

놀이공원 팀은 놀이기구를 타면서 친교의 시간을 보냈고, 관광지 팀은 문화재 있는 곳을 견학하면서 구경하고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어서 고기 집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의 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본 대학 총장님께서 오셔서 격려를 하셨다.

밤에는 숙소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였다. 복합한 선배들의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달구어졌다. 임원들이 준비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찬양이 절로 나왔다.

풍력발전단지과 해맞이 공원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마음의 힐링을 받은 우리는 이제 뱃속을 힐링하기 위해서 숙소로 갔다. 숙소는 영역 강구항에 있는 강구교회였다.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지하로 내려가 보니 아주 넓고 깨끗했다. 넓고 깨끗한 교회에서 짐을 풀고 나니 우리의 뱃속을 힐링시켜 줄 영역 대개와 회가 차려졌다. 평소 먹기 힘든 대개와 회가 차려지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낮에는 풍력발전단지과 해맞이공원에서 마음의 힐링을 그리고 저녁식사 시간에는 대개와 회로 뱃속 힐링을 받고 난 후 우리는 영혼의 힐링을 받기 위해 모였다. 우리의 영혼을 힐링시켜 주실 분으로는 큰소름을쟁교회의 김대현 목사님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힐링시켜주시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삼삼23:1-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원우들은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기서 회복된 후 돌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엠티를 통해서 아직 많이 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평들이 많았다.

다음 날에는 순두부집에서 식사를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1박2일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구성원들의 화합을 증진한 엠티였다고 자랑한다.

사회복지학과 강소영 기자

■ 꿀잼 MT (신학과)



2018년도 신학과 신, 편입생 MT가 구미선산 은파재 영성수양관에서 진행 되었다. 금번 신학과 MT는 3월 29일(목)부터 3월 30일(금)까지 ‘꿀잼 엠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첫째 날은 길 찾기 게임, 나를 맞춰봐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있었고 어색하던 학우들의 분위기를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어주었다. 신학과 학생들이 더욱 돈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째 날 저녁에는 나눔과 기도를 진행하여 촛불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신학교에 진학 하게 된 계기와 신학교를 진학 후 변화 된 모습들을 선후배가 서로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찬양과 기도도 진행 되었었지만 기도시간이 짧아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둘째 날은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아침식사와 쉬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님과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학업에 다시 열중하고 학교생활에 활력이 되는 시간들이었다.

이번 신학과 MT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편입생들의 참석률도 높아 다양한 연령층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MT 진행 가운데 최대해 총장의 방문으로 통해 더욱 힘을 얻고 하나 가 될 수 있었다.

다른 MT 때보다 더 다양한 준비와 노력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신학과 조효원 기자

■ 함께하는 음악과 MT (음악과)



2018년 3월 29~30일(목~금) 이틀간 각 학과가 MT를 다녀왔다. 음악과는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뮤지엄 스테이션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 오전에 심포니아홀에서 안전점검과 간단한 OT를 실시하였다. 전 학년이다 같이 오이는 첫 행사인 만큼 다들 설레고 들뜬 모습이었다. 버스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에 도착 후 방 배정을 하고 간단히 짐을 풀고 게임하기

고민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

말씀이 끝난 후 원우 이경식 전도사님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학과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서로 웃고 즐겼다.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지친 마음, 교회에서 사역하느라 지친 마음이 마치 다윗의 수금소리를 듣고 사울이 회복되었듯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MT 첫째날을 마쳤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방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몰랐던 전도사님들이 서로 친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아침지만 MT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우리는 강구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아침 식사를 먹고 경북수목원으로 출발했다. 공부하느라 몰랐지만 수목원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불이 어느덧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침부터 느끼는 봄은 너무 아름다웠다. 추운 겨울 뒤에 찾아온 봄은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듯이 이번 MT가 우리 신대원 원우들에게 이런 행사가 아니었다 싶다.

신대학원 이상현 기자

편한 차림으로 웃을 갈아입었다. 인조잔디구장에서 조별로 단체미나체육대회를 했다.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모두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일정을 위해 휴식 시간을 가졌다. 휴식 시간에 최대해 총장님이 방문하셔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후 교수님들이 방문하셨고,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다. 게임하느라 허기진 학우들은 부족함 없이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바로 장기자랑과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1학년 학우들이 MT에 가기 전부터 열심히 장기자랑준비를 해준 덕분에 다들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들도 지켜보시며 호호했었다. 레크리에이션 학우 모두 잘 참여한 덕분에 게임인행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이후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며 취침했고 다음날 단체사진을 마지막으로 찍고 학교로 출발하며 MT가 끝났다. 1박 2일 동안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MT를 마무리했다. 안전에 유의하고 잘 협조해준 학우들, MT를 위해 애쓰 음악학부 학회와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처음으로 전 학년 모두 함께한 행사여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번 MT를 계기로 선후배 모두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좋은 추억으로 기억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학과 변희욱 기자

인/터/뷰

1학년 플루트전공) 배수현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MT를 가게 되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가면 장기자랑을 해 본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준비하게 되어서 뜻깊었다. 선배님들의 큰 호응으로 장기자랑 무대를 잘 마무리 했다.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았고 앞으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동기들과 선배님들과도 잘 지내고 싶다.

3학년 기타전공) 음악학부 학회장 정강훈

MT를 준비하기 전에는 적은 인원을 예상했지만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직접 진행을 하면서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었고 저녁에는 맛있는 고기를 직접 구워먹는 시간을 가졌을 때 모두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엠티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나 성공적이고 예의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엠티가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PIANO FORTE CLUB 20th Recital “For Two Pianos”

4월 17일 화요일 7시 30분 대구 우봉아트홀에서 제 20회 피아노포르테클럽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전석초대로 진행되는 올해 프로그램은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4개의 피아노 듀오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곡으로는 C. Guastavino : Tres Romances Argentinos가 연주되었다. 1.Las Ninas de Santa Fe, 2.Muchacho Jujeno , 3.Baile en Cuyo. 아르헨티나 로망스라는 뜻이고 3개의 곡으로 구성되어있다. 곡 제목처럼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잘 느껴졌다.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아 남미의 탱고같은 느낌이 느껴지기도 했다.

첫 번째 무대가 끝났고 오존주 교수의 연주가 이어졌다. 미리 프로그램 팜플렛을 받아 봤을 때 제일 기대가되는 곡이었다. 바로 F. Liszt : Mazeppa이다. 극악 난이도의 피아노 곡을 감히 ‘연습곡’이라 이름붙인 작곡가 리스트(Liszt)의 바로 그 곡 ‘초절기고 연습곡’의 4번곡의 이름이 바로 Mazeppa이다. Mazeppa는 빅토르 위고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인데 리스트는 곡목을 여기서 따왔다고 한다. 혼자치기에도 너무 어려운 곡인데 듀오로

한다니, 그만큼 곡의 웅장함과 화려함도 두 배로 느껴졌다. 두 분이 얼마나 많이 연습하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무대였다. 15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연주였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곡에 빠져들어서 같이 즐길 수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두 번째 무대가 끝이 났다.

바로 이어지는 곡은 역시나 기대를 많이 했던 W. Bolcom, "The Garden of Eden" 이다. 현재까지 현존하는 미국 작곡가 윌리엄 볼콕이 작곡한 에덴의 동산(The Garden of Eden)은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동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으며, '그 옛날의 아담', '영원한 여성(이브)', '뱀의 키스', '에덴의 문으로'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연주에서는 '에덴의 문으로' 곡을 뺀 나머지 3개의 곡만 연주되었다. 이 작품은 레그타임 스타일로 볼콕 특유의 재즈 스타일이 잘 들어났다. 1번째, 2번째 곡이 비슷한데 재즈스타일의 밝고 통통 튀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이다. 제일 인상 깊었던 곡인 마지막 곡은 3.The Serpent's Kiss(뱀의 키스)이다. 곡 제목에 걸맞게 네 곡 중 가장 화려한 곡이며 연주자들이 박자에 맞춰서 발을 구르고 피아노를 두드렸다. 이처럼 현대기법들이 나타난 작품이다.

재미있는 연주가 끝났고 마지막 무대인 J. Brahms : 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Op.56b 이 연주되었다. 하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며 그의 변주곡 중 최고의 작품으로 알려진 곡이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어진 곡이며 진행이 비슷하지만 약간의 변형되어 연주된다. 잔잔하면서도 슬펐고, 신나는 분위기로 바뀌기도 했다. 이 연주는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연주회가 끝난 후, 각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 뒤 단체 사진촬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 좋은 연주를 들려주신 수고해주신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오늘 이 연주는 학생들, 관객들에게는 눈과 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연주회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한다는 점을 깨닫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음악학과 변희옥 기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김성빈/이명신 듀오 리사이틀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7시 30분, 계명대학교 아담스 채플에서 김성빈/이명신 듀오 리사이틀이 열렸다. 테너 김성빈, 오르간 이명신 교수님의 연주이며 전석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성악과 오르간이 함께 어우러진 아주 특별한 연주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며 미사(예배)전례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연주회는 전례에 따라 Kyrie(자비송), Gloria(영광송), Credo(신앙고백), Sanctus(거룩하시다), Benedictus(복 있도다),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 순서로 열린다.

첫 번째 곡으로는 오르간곡인 북스테후데(D. Buxtehude)의 토카타 F 장조 BuxWV156(Tocatta in F major, BuxWV156)이 연주되었다. 자비송과 영광송은 오르간 반주와 성악이 함께한다. 구노(Ch. Gounod)의 아, 용서하소서(Repentir), 다음 곡으로는 헨델(G.F. Handel)의 곡들이 이어졌다. 메시아(Aria from Oratorio <Messiah>), 내 백성을 위로하라(Comfort Ye My People),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Every Vally Shall Be Exalted)까지 마친 후 Credo(신앙고백)는 오르간만 연주된다.

곡은 바흐(J.S. Bach)의 이것은 성스러운 십계명 일니다(Dies sind die heiligen zehen Gebot)BWV678과 투르느미르(Ch. Tournemire)의 “어린양의 희생”곡조에 의한 코랄 즉흥연주(Chral-Improvisation sur le “Victimae paschali”)이다.

음악학과 변희옥 기자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었다.

연주는 곧 합창으로 이어졌다. 곡은 사랑, Gloria in excelsis, Kyrie, Gaudeamus! 순서로 연주되었고 Kyrie라는 곡은 드림과 마법바 소리로 리드미컬한 느낌을 살렸고 마지막 곡까지 드림이 함께 하며 곡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더 잘 전달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앵콜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합창을 지휘하신 최희철 교수는 “믿음과 소망은 내 자신의 것이지만 사랑은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함께 전하시며 사랑이라는 곡을 들려주었다.

모든 연주가 끝나고 연주자들 모두 나와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연주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교수님들과 많은 학우들, 연주자들의 가족, 친구들이 참석했다. 모두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많은 축하 속에 정기연주회가 끝이 났다. 연주자들 모두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을 이날 무대에서 쏟아냈다. 힘들었던 지난날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연주자들과, 무대 뒤에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자기 일처럼 신경써준 학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 학우들이 없었다면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 연주회는 서로 도우며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모두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음악학부가 되길 바란다.

음악학과 변희옥 기자



사랑의 연탄 나누기



대신대학교 직원들 뿐 아니라 교수도 함께 참여하여 대신대학교의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작은 사랑의 나눔이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장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실천하는 마음으로 연탄을 전달했다. 모두의 장갑을 낀 손이 새까맣게 물들고 매서운 겨울바람에 불은 차가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김신향 편집장

봉사동아리

“봉사의 기쁨을 나누어요”

διακονία

2018년 5월 18일 디아코니아 봉사 동아리에서는 반월당 현철의 집에 가서 현철 봉사를 했다. 그리스어로 봉사라는 뜻인, διακονία에서 나온, 디아코니아 봉사 동아리는 지난 2017년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자회, 현철 등등 다양한 봉사를 하였고, 이 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만나며 우리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웃에 대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번 현철 봉사에는 지난번 보다 참석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현철을 함으로써 내 피가 다른 곳에서 소중히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다. 몸은 지치고 힘든데,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얻고 가는 느낌이 크다고 모두들 말한다. 이것이 봉사의 기쁨일 것이다. 앞으로 디아코니아 봉사 동아리를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진정한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 위 에 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마음을 가진 많은 학우여러분들을 디 아 코 니 아 봉 사 동아리에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학과 강소영 기자

성폭력예방교육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지난 4월 6일 금요일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오신 고정자 강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러 왔다. 고정자 강사는 여성들의 과거에 대한 인식과 지금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며, 성폭력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13%의 비율이라고 전하였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여성과 성폭력에 관한 사고를 확장 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역설하였다. 요새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만 성추행과 성폭행의 가해자라는 것도 이제는 고정관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 되어있는 사람이 의외로 그 수가 많다고 하였고, 그걸 폭력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만약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숨은 그림 찾듯이 자세히 주변을 찾았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실 주변에 보면 가정에서 성폭력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경우도 있다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을지 상상도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성폭력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처가 필요하다. 정확한 의사표현과 거부 의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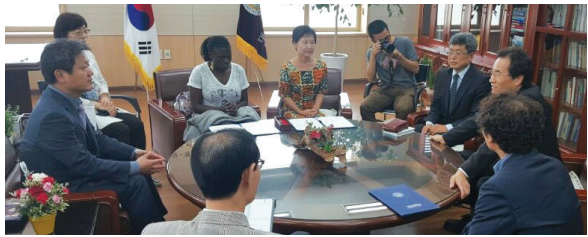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 이웃에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어떤 경우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폭행을 당한 것을 드러내어 빨리 해결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과 강소영 기자



대신대학교 아프리카 음악대학 MOU 체결



대신대학교(총장 최대해)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위치한 아프리카 음악대학(학장 박마리아)과 2018년 5월 25일 대신대학교 총장실에서 양 교간에 교류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앞으로 두 학교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두 대학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교육,



연구 및 기타 활동 분야의 학술 프로그램과 문화교류를 개발하며,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편집장 김신향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찬양

노방찬양 동아리



매 주 수 요 일 , 대신대학교 인문관 앞에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진다. 피아노나 드럼 같은 악기조차 없다. 목소리가 악기이다. 햇살이 따갑게 비치는 날에도 찬양이 들린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도 역시 그 찬양은 멈추지 않는다. 열정을 멈출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Bride of Worthy Is the Lamb(존귀한 어린양의 신부)이라는 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베스킹 동아리이다. 다양한 학년의 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의 학생들이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가지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게이 사용한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한다. 채플 시간에만 들리는

신학과 조효원 기자

학/술/세/미/나 사회적 담론에 대한 기독교적 방안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대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주최로 '사회적 담론에 대한 기독교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의 환영사와 반야월교회 담임목사 이승희 부총회장의 축사로 학술대회를 시작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논문 발표가 실시되었다. 총신에서 오신 이상원 박사가 첫 번째 시간을 맡았다. 이상원 박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윤리 문제를 다뤘다. 지금 인공지능은 강한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인간이 가진 모든

정신기능들 곧 지성, 감정, 의지, 자유로운 선택능력까지 가진 인공지능이다. 사람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유는 이상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문제는 이상향을 향해 순조롭게 가다가도 결국 인간의 죄성이 이를 다 망쳐버리고 반 이상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상원 박사의 논문의 내용이었다. 논문발표가 끝나자 대신대학교 황봉환 부총장이 논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논문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반야월교회에서 제공되는 갈비탕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과일들을 먹었다.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곧

한국번역학회 2018 봄 학술대회



지난 4월 21일 토요일에 본교에서 한국번역학회의 2018 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10년 만에 수도권 이외의 장소인 대구에서 열린 만큼 뜻깊은 행사였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본교 최대해 총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해주었다.

김순영 회장의 개회사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번역학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뮤지컬 자막’, ‘화면해설’, ‘통역학 연구방법론’,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불경번역에서의 문제’, ‘자막번역에서의 젠더’ 등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토론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장 김신향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입했다.

두 번째 논문은 충신대학교 강미량 박사가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카테키시스의 교육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카테키시스라는 말은 ‘신앙교육’이라는 말이다. 이 논문은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 종교개혁 시대 등등의 역사를 다루며 지금까지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칼빈이 말하는 신앙교육에 대해 심화 있게 다룬 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카테키시스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 논문발표가 끝난 후 대신대 이병일 교수가 논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권호 박사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설교 강단에서 일어나는 ‘본문 이탈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가 본문에서 시작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단에 울려 퍼지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논문을 발표해 주셨다. 이어서 대신대 이승우 교수가 논평하였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황봉환 부총장의 총평과 기도로 학술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고민해보지 않았던 인공지능과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설교 강단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 개의 논문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신학대학원 이상현 기자



교수논단 한국교회 찬양예배 수용기(受容記)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는 것으로 글을 시작할까 한다.

어느 이름난 아름다운 성읍의 높은 망루에는 파수꾼이 있었다. 밤을 꼬박 새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를 더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멀리 성을 향해 오는 한 사람이 보인다. 그의 걸음이 성읍을 향해 가까워지도록 파수꾼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생김새와 복색으로 미루어보아 서쪽나라 사람인 듯한데, 뭐하는 사람이며 그가 끌고 오는 마차에는 무엇이 실려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기에 더더욱 면밀히 관찰한다.

이윽고 성 앞에 다다른 그가 안으로 들어 보내주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들여보내도 될지, 일단 기다리게 해야 하는지, 돌려보내야 할지 우선 확인해야만 한다. 파수꾼은 간단한 몇 가지를 질문한다. 성 안에 사는 서쪽나라에서 온 사람을 불러 이 사람에 대해 잘 아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가 싣고 온 저 물건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며 우리 성읍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 전염병이라도 옮겨온 건 아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혹 신분이 확인되어 들여보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바가 있다면 일단 먹이고 씻기며 한동안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한다.

완고한 성격의 새로운 왕이 자리에 오른 어느 날, 성루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수꾼의 일이 비생산적이라 판단한 왕은 비정규직이었던 파수꾼을 해고해 버리고, 대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경제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한때 교역의 중심이었던 성읍을 영악한 장사꾼들이 그냥 포기할리 만무하다. 각지에서 모인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성읍을 찾았고, 숫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밤낮 없이 성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결코 지치지 않는 기세로 세를 불려가던 그들은 금기야 성문을 힘으로 밀기 시작한다.

어이없이 성문이 무너지는 순간 익숙에 눈이 먼 장사꾼들은 말 그대로 ‘몰뒀듯이’ 성읍으로 몰려 들어왔고,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된다. 누가 성 안 사람인지 성 밖 사람인지도,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의 구분도 어려워 졌다. 새로운 물건들의 갑작스러운 대량 유입에 열광하는 사람도, 우려하는 사람도,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진 사람들은 이것저것 새 물건들을 사들여 써 보기도 했지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장인의 예술성과 노고가 깃든 물건이 대접받는 대신에 잘 팔리면 좋은 것이고 안 팔리면 나쁜 것으로 여기는 천박함이 당연해지기도 했다.

오랜 시간 성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구닥다리로 전락하기도 했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은 성문이 무너진 것이 오히려 반갑기만 했다. 또 밖에서 들어온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니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만만찮았다. 결국 성읍은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명성을 잃어가며 소란하고도 지저분한 곳으로 퇴락해 갔다.

우습도록 극단적이면서도 슬프도록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언제나 자화상을 그려내는 것은 가장 어렵고도 아픈 일이다. 한국교회의 문화수용방식은 이토록 단순하다. 기본적으로는 ‘쇄국정책’,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곧바로 ‘사대주의’로 돌변한다. 쇄국정책과 사대주의 사이의 경계란 마치 거센 폭풍우 앞의 문풍지처럼 아슬아슬하여 대중문화의 북풍한설을 막아내기엔 터무니없이 연약해 보인다.

현대화(Modernization)와 세속화(Secularization)의 기로에 선 한국교회는 내내 주체의 문제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 왔다.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면 현대화, 세상이 주체가 되면 세속화라는 식의 이분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는 늘 이원화된 입장이 있어 왔다. 전통과 개혁의 문제는 비단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구분 짓는 것대 그 이상의 내부적 동력원이었다. 이 오랜 맞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진취적으로 이끄는 자정원이기도 했고,



음악과 민호기 교수

동시에 갈등과 분쟁의 근원이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변화에 대한 낯선 ‘검열자’는 많되 좋은 ‘관찰자’가 없다는데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장의 현상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급한 검열자에 비해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지켜볼 줄 아는 진지한 관찰자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이다. 검열자와 관찰자 사이에서 한국교회는 언제나 스스로 완고한 검열자이기만을 원했다. 그러나 결코 지치지 않고 포기도 모르는 세속적 대중문화의 위압 앞에 결국은 종속적 소비자로 전락해 버린다. 혹은 관찰하기를 게을리 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기보다 이미 유입된 현대적인 문화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혐오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알맹한 자존심을 지켜내려 한다.

이렇듯 교회는 문화 전반에 있어서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많은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세상에 내어주게 된다. 이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예배문화’, 특별히 ‘찬양’을 매개로 하는 예배는 교회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가 문화이면서 문화가 아니듯, 예배 또한

문화지만 문화가 아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경배와 찬양 운동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과 논란 속에서 예배에 대한 인식과 형식의 변화 뿐 아니라 한국교회 문화 전반의 변혁을 가져왔다. 그것을 변혁으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현대적 찬양예배의 유입은 최소한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의 변화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본질로 보느냐, 형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이견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본질을 사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예배 형식의 변화를 두고 ‘본질의 변질’로 확대해석할 것이고, 형식의 변화에 민감한 이들은 전통적 예배 방식의 고수를 ‘본질을 오해’한 형식의 우상화로 치부하기도 한다. 예배를 유행이나, 트렌드로 인식하는 가벼움도 문제지만, 예배 형식을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유연하지 못한 태도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각자의 정의(定義)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예배란 ‘엄숙’, ‘경건’, ‘거룩’, ‘정결’로 정의한다. 또 어떤 이는 예배란 ‘자유’, ‘기쁨’, ‘열정’, ‘축제’로 정의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정의에 따라 예배하기 마련이고, 자신과 다른 정의를 가진 이의 예배가 충분히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예배 방식이 진짜 예배라 믿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개인의 예배 정의에 따른 형식의 상이는 서로 간의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사실 한국교회의 세대와 문화 간의 오랜 갈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음악의 도구화나 가치중립성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해묵은 음악장르논쟁 등으로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특정 악기(드럼, 일렉기타)의 사용 여부를 두고 편이 갈려 싸웠고,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성’과 ‘속’의 이원론의 잣대는 유독 찬양예배에 더 날카롭게 들이대졌고, 수많은 음악사역자들이 자신이 부름 받은 사역의 방식을 변호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조차 더 이상 심각한 논쟁거리로 다뤄지지도 않는다. 이미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전자악기들이 연주되고 있는데 자꾸 말하면 무엇 하나씩 식의 체념적 태도는 충분한 관찰과 검증의 결과가 아닌 무비판적 태세의 수용에 불과하다. 그토록 본질과 전통을 부르짖으며 성경에 근거해 전자악기를 반대하던 장로님들이 어느 순간 별 거부감 없이 드럼 반주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은 묘한 이질감을 준다.

예배는 변혁의 주체이며 동시에 변혁의 대상이다. 예배는 성도의 말과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부흥을 이끌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체가 된다.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완전하신 분을 향한 다양한 표현방식들을 한국교회는 찾아내야할 필요가 있다.

2017학년도 2학기 발전기금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대학교는 이 도움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지역 교회 부흥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후원계좌번호 · 농 협 : 761-01-144235 (예금주 : 대구신학원)
· 농 협 : 301-0144-8182-21 (예금주 : 대신대학교)

※ 제 공 : 대신대학교 발전위원회
※ 여러분의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원하시면 대신대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053-810-0808

▶후원금 현황 (참여기간 2017.09. ~ 2018.02.) ▶총 후원금액 : 329,675,000원

교 회

가창교회 경산교회 경산삼성교회 경산중앙교회 경애교회 계당교회 고락교회 고산중앙교회 광명교회 구미상모교회 구미서부교회 길안중앙교회 나눔과섬김의교회 낙산교회 남부교회 남원교회 내일교회 달서교회 대구대동교회 대구대성교회 대구대영교회 대구동부교회 대구동산교회 대구동성교회 대구목자교회 대구부광교회 대구삼성교회 대구서문교회 대구성일교회 대구수산교회 대구영신교회 대구칠곡중앙교회 대구침산제일교회 대구평리교회 대구평안교회 대도교회 대영교회 대봉제일교회 대성교회 대울교회 대흥교회 동령교회 동막교회 동신교회 동행교회 드림교회 만성교회 박사교회 반계교회 반야월서부교회 반야월중부교회 봉덕교회 복삼제일교회 복일교회 사수교회 상모교회 서대구교회 서성로교회 선민교회 설화교회 성광교회 성덕교회 성도교회 성서교회 성서중부교회 성주중앙교회 소망교회 시온교회 신일교회 안심교회 열린문교회 영신교회 영주교회 영천동부교회 예일교회 오천제일교회 오촌교회 온세상교회 와촌교회 왜관교회 울산반석교회 울산서현교회 은평교회 의성교회 의송교회 이가교회 이서교회 자인제일교회 점촌제일교회 진주성남교회 참좋은교회 청도대성교회 청도수야교회 초곡교회 초원교회 큰숲교회 탐리교회 태평교회 파동창대교회 팔달중앙교회 포남교회 포항지구촌교회 풍기제일교회 하양교회 행복한우리교회 황금교회

노회 및 단체

경청노회 경청노회기독교장로면려회연합회 김천노회 남대구노회 대경노회CE 대구경북장로회 대구국동방송 대구노회 대구동노회 대구수성노회 대구장로회 대구중노회 대구지역장로회연합회 대구청장년면려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박언회내과의원 서대구서노회 수성노회남전도회 수성장로회 안동노회 영남지역장로회 (주)창대건설 (주)창대특수화물 총동창회 지아이화물(주) 하베림

개인 기부자 명단

Ajay Kumar ariyal 갈경순 강경미 강경숙 강경희 강계태 강광술 강대웅 강명에 강병수 강복례 강순금 강영균 강영숙 강원진 강은경 강은수 강은전 강이환 강정현 강창미 강창진 강필욱 강혁주 강현숙 고성현 고희환 고정미 고주석 고희림 공귀숙 공동현 광명숙 광무생 광순석 객인현 객태연 객해정 구금화 구명보 구분수 구분의 구서균 구순옥 구자덕 구장희 구정순 구형숙 권경도 권경찬 권기조 권나현 권명희 권병복 권사무엘 권성민 권수남 권수형 권순자 권영미 권영복 권익열 권정에 권정열 권진혁 권태범 권태웅 권해연 권현숙 권현옥 권현주 권형철 금은주 김경 김경대 김경란 김경숙 김경순 김경자 김경호 김관식 김광배 김광석 김광수 김광식 김광욱 김귀숙 김규리 김규형 김규환 김금옥 김금자 김기현

김길수 김길순 김나나 김난영 김남희 김년호 김다정 김대수 김대식 김대현 김대현 김덕선 김도훈 김말희 김명남 김명순 김명애 김명옥 김명희 김묘선 김무성 김문락 김미선 김미숙 김마옥 김미자 김미정 김미혜 김미희 김민련 김민지 김복녀 김복란 김복수 김복자 김봉열 김봉출 김분남 김분노 김분자 김상규 김상욱 김상봉 김상숙 김상윤 김상의 김상화 김서경 김석철 김선숙 김선영 김선옥 김선철 김선희 김성구 김성빈 김성수 김성식 김성은 김성일 김성준 김성현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업 김세영 김세정 김소옥 김수정 김수진 김수철 김수현 김순남 김순덕 김순란 김순애 김순례 김순애 김승동 김승준 김시창 김시현 김신경 김신길 김신옥 김신희 김애란 김애록 김양희 김연희 김영규 김영림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옥 김영진 김영화 김영희 김예은 김옥 김옥복 김옥선 김옥이 김옥자 김요한 김용배 김용준 김용필 김용호 김용휘 김용희 김윤학 김유경 김유신 김윤경 김윤옥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순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혜 김은희 김의진 김익순 김인규 김인수 김인홍 김인화 김인환 김자준 김장수 김재선 김점출 김정남 김정민 김정선 김정숙 김정순 김정에 김정옥 김정자 김정진 김정한 김정혜 김종균 김종례 김종숙 김종신 김종우 김종원 김종평 김종해 김종환 김주식 김주는 김주필 김주희 김종석 김종철 김지애 김지영 김진숙 김진실 김진일 김진홍 김차남 김차주 김찬영 김창균 김창수 김창영 김찬일 김철수 김춘연 김춘옥 김춘자 김춘희 김태돌 김태선 김태영 김태웅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희 김필선 김하람 김학권 김한기 김한나 김한수 김해선 김해숙 김현덕 김현두 김현아 김현우 김현정 김형미 김형일 김형호 김혜란 김혜영 김혜정 김호건 김홍옥 김홍진 김화선 김희성 김희원 나복선 나채득 남궁면 남대하 남동자 남명혜 남미임 남성진 남옥이 남주현 노경서 노선영 노승옥 노연주 노은성 노진봉 노창수 노현우 도미향 도병환 도춘희 라세스 류경림 류기옥 류명희 류무재 류민 류병남 류정현 류정희 류준식 류진교 류현정 마정숙 명예영 명일택 문금희 문무출 문미현 문상조 문소영 문수업 문예진 문정미 문정주 문태희 민경옥 민경원 민세훈 민정희 민천식 박경록 박경미 박경선 박경일 박경희 박광규 박광림 박귀선 박귀조 박근식 박금옥 박금자 박금화 박기순 박남숙 박노숙 박노옥 박노익 박노희 박다은 박동렬 박동숙 박두례 박두임 박만수 박명수 박명자 박명희 박무연 박문환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미현 박민균 박민지 박병석 박병연 박복희 박보예 박상규 박상렬 박상민 박상옥 박상주 박상진 박상현 박선영 박선희 박성숙 박성연 박성옥 박성은 박성희 박세환 박수금 박순기 박순남 박순선 박순애 박순임 박순현 박연옥 박영구 박영만 박영미 박영빈 박영숙 박영애 박영옥 박영택 박영혜 박영희 박예원 박예진 박요안나 박원권 박원동 박원하 박유경 박유리 박유문 박윤경 박윤만 박윤숙 박윤정 박유주 박은경 박은민 박은향 박은혜 박은희 박인순 박임순 박재영 박재훈 박점순 박정숙 박정열 박정원 박정태 박종열 박종진 박종희 박종환 박지영 박진규 박진숙 박찬옥 박창곤 박창식 박천만 박천순 박태영 박태웅 박태철 박해명 박해옥 박해정 박행임 박현미 박현자 박현주 박혜자 박호완 박화자 박희송 박희종 박희숙 박희진 박희필 박옥주 배건호 배경수 배광식 배광중 배다분 배동석 배명분 배신화 배세원 배수옥 배연택 배영오 배영진 배은혜 배정희 배제창 배종화 배지성 배지혜 배해동 배해영 배호순 백남승 백성희 백연화 백영애 백용선 백유현 백윤덕 백은주 백주현 백태경 백태승 변동철 변영주 변은아 변진오 복성례 빈성기 서경자 서경석 서경식 서길수 서노아 서동규 서동성 서만석 서병례 서상모 서상연 서선조 서성규 서성표 서수용 서순란 서여진 서영태 서영희 서요한 서원태 서은실 서정숙 서정오 서정진 서제철 서주영 서창용 서혜민 서희정 석영아 석진두 석태순 석희숙 설선은 설오진 성기진 성기철 성다혜 성명자 성상봉 성석문 성선자 성성용 성숙이 성영순 성옥준 성은혜 소경혜 소병희 손경태 손계내 손기주 손길남 손대영 손명희 손미정 손새이 손석규 손수양 손순자 손순택 손영숙 손영애 손영희 손원규 손장희 손정훈 손정화 손재규 손주담 손주영 손주진 손춘지 손하은 손호연 송민지 송백선 송석길 송영희 송인문 송인순 송재용 송정옥 송태경 송활신 시진호 신경심 신경아 신경영 신경옥 신광범 신동주 신명자 신명희 신미경 신성권 신영희 신원관 신원관 신유식 신은주 신인옥 신정숙 신정순 신정식 신정원 신정혜 신종수 신진영 신천보 신학근 신해범 신현국 신현중 신현진 신현태 신혜란 심경은 심계화 심미송 심성희 심숙이 심순애 심연순 심은숙 심은희 안미상 안병연 안병훈 안상호 안석산 안성민 안소명 안숙향 안춘자 안혁희 안현순 안혜선 안희철 양금 양미희 양승혜 양이름 양영숙 양영희 양은숙 양재덕 양태욱 양혜민 여영애 여은경 예미영 오명숙 오방자 오병옥 오상철 오상희 오성혜 오숙현 오순복 오영림 오은주 오은향 오종 오지연 오천세 오철태 오태희 오현진 오혜숙 우광하 우덕영 우덕희 우세진 우순희 우영근 우영신 우윤찬 우종철 우주연 우현진 우홍영 원난하 원순태 원애령 원용훈 위상원 유경생 유경자 유경희 유동균 유선경 유송자 유예옥 유재선 유재연 유정순 유춘자 유해선 유형남 육정희 윤건용 윤경숙 윤경영 윤계수 윤관희 윤대근 윤덕재 윤동훈 윤영희 윤미라 윤성권 윤성혜 윤신광 윤영애 윤영혜 윤예주 윤옥자 윤외숙 윤우보 윤재원 윤정순 윤현정 윤형남 윤순희 은종관 이각일 이강남 이경주 이경진 이경호 이경희 이광석 이광순 이광우 이광혜 이광희 이국현 이귀분 이귀조 이금자 이기영 이길수 이낙정 이대봉 이대현 이도화 이동걸 이동경 이동우 이동옥 이동진 이동현 이득수 이란경 이말수 이만년 이명숙 이명신 이명옥 이명자 이명희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미희 이봉진 이부희 이분희 이상구 이상규 이상국 이상돈 이상미 이상복 이상봉 이상승 이상옥 이상조 이상현 이상현 이상혜 이상희 이석환 이선애 이선희 이상덕 이상미 이상은 이상철 이상택 이성희 이세호 이수향 이숙자 이숙희 이순기 이순옥 이순현 이순희 이승운 이승호 이신영 이애자 이애스더 이영미 이영삼 이영상 이영수 이영숙 이영아 이영옥 이영익 이영자 이영재 이영희 이옥남 이옥란 이옥순 이옥연 이옥자 이옥자 이용문 이용철 이용화 이원세 이원태 이원호 이윤정 이윤종 이윤환 이은섭 이은실 이은식 이은영 이은지 이인선 이인숙 이인태 이인혜 이재운 이재민 이재혁 이재희 이정미 이정관 이정미 이정순 이정아 이정애 이정민 이정일 이정임 이정화 이종구 이종기 이종대 이종돈 이종택 이종숙 이종열 이종원 이종호 이종환 이주선 이주원 이준수 이종근 이진숙 이진태 이차수 이찬수 이찬숙 이찬하 이춘선 이춘자 이철동 이필희 이하경 이하은 이학자 이해란 이해순 이항자 이현미 이현섭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혜숙 이혜영 이혜원 이혜진 이화자 이효대 이희남 이희석 이희숙 이희순 임경연 임나현 임만기 임미숙 임숙이 임옥자 임은복 임재연 임종필 임준화 임차연 임춘하 임태숙 임필출 임한수 임해순 장 총 장 격 장계순 장기태 장린규 장병구 장선혜 장성규 장세영 장순희 장영숙 장옥순 장옥희 장원석 장은수 장은주 장의자 장인권 장재호 장정옥 장진환 장혜은 장혜정 장희종 전국진 전명숙 전미정 전민아 전삼희 전상훈 전순남 전양자 전영애 전유자 전윤희 전은진 전재락 전정두 전종호 전종훈 전태석 전현석 전현숙 전후남 정경자 정경진 정광주 정국성 정기홍 정다은 정동화 정만석 정말숙 정미경 정미라 정미영 정미주 정병일 정복순 정상진 정선문 정선숙 정선화 정성근 정성달 정성훈 정수정 정소금 정순덕 정순자 정승용 정승한 정시찬 정신해 정애현 정연민 정연옥 정연경 정영덕 정영일 정요셉 정용옥 정원희 정윤옥 정은숙 정은주 정은화 정이슬 정인숙 정인순 정인정 정인하 정재민 정정봉 정정태 정정화 정정환 정종원 정종찬 정종환 정좌정 정주성 정중화 정진문 정창숙 정한솔 정해근 정해영 정현숙 정혜영 정화자 조경애 조경연 조경혜 조국현 조기동 조두현 조말연 조문영 조미향 조성경 조성규 조성일 조성희 조순경 조순자 조영석 조영숙 조예민 조은덕 조은주 조은향 조인에 조정림 조정숙 조정에 조정혜 조종화 조준모 조혜경 조혜영 조혜정 조후근 주옥자 주은혜 주재필 주형숙 주효진 지동춘 지승걸 지영애 지주희 지현구 지화진 진명희 진영태 차경덕 차미선 차미옥 차애경 차인숙 차해경 채경석 채경현 채경희 채동선 채민수 채선규 채성수 채순영 채경자 천경조 천성은 천옥자 천원석 최 훈 최경숙 최경신 최경자 최경희 최남출 최대해 최도정 최두근 최말숙 최명화 최무숙 최미자 최미화 최병현 최보부 최복임 최성호 최성희 최세은 최소은 최소희 최수현 최수희 최순옥 최순임 최양규 최원희 최영규 최영미 최영애 최영택 최영희 최옥순 최용길 최원선 최원연 최유화 최은민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이슬 최익현 최인옥 최인순 최장선 최재하 최정숙 최준선 최주현 최진미 최찬미 최창영 최창현 최태선 최태원 최태호 최현경 최현숙 최혜실 최화옥 추준자 태영철 표재만 표주현 하경순 하문자 하미숙 하복희 하재희 하정호 하창호 하현자 한경수 한경숙 한국수 한도경 한명희 한병남 한영애 한은경 한은혜 한정에 한준우 한진석 함성도 허강일 허금자 허문정 허미라 허배도 허수이 허옥순 허정희 허진향 허택민 허현 하훈영 허희경 현지원 홍동숙 홍미애 홍복순 홍석현 홍선옥 홍성택 홍성훈 홍수경 홍숙자 홍영환 홍용선 홍태숙 홍현창 홍화덕 홍희숙 황기영 황금숙 황명숙 황미애 황보수 황보원에 황보화숙 황봉순 황병미 황옥선 황우규 황유린 황윤락 황정선 황정주 황정호 황준옥 황지영 황태식 황태정 황현주 황현희 황호규 황화주 황환도

www.daeshin.ac.kr

대신대학교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입시일정 안내

2019학년도 학부수시모집 원서접수 2018. 9. 10(월) ~ 9. 14(금)
전형일 2018. 10. 15(월)

2019학년도 신대원모집 원서접수 2018. 11. 12(월) ~ 11. 15(목)
전형일 2018. 11. 26(월)

2018학년도 대학원후기모집 원서접수 2018. 6. 11(월) ~ 6. 13(수)
전형일 2018. 6. 25(월)

2019학년도 목회신학원 후기모집 원서접수 2018. 7. 23(월) ~ 8. 22(수)

2019학년도 목회신학원 전기모집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20(수)

모집학과 안내

| 학 부 | 신학과 / 사회복지학과 / 상담영어학부 【상담심리전공, 영어전공】

음악학부 교회음악전공 【성악, 작곡, 오르간】

기 악 전 공 【피아노, 관현악, 플루트】

실용음악전공 【워십리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실용작곡, 재즈피아노】

※ 2019학년도 모집학부(과) 조정으로 인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중이오니 심의 결과 결정에 따라 모집요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추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신학과(Th.M.) / 영어영문학과(M.A.) / 사회복지학과(M.A.) / 음악학과(M.Mus.)

박사과정
신학과(Ph.D.)

| 신학대학원 | 신학과(M.Div.)

대신대학교 부설

| 목회신학원 |

학문 · 경건 · 사랑
대신대학교
DAESHIN UNIVERSITY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TEL : 053)810-0701~3
FAX : 053)813-0006